

지역 매아리

유기상 고창군수, 무장면 찾아 이동군청 마련 현장소통 행정

유기상 고창군수는 22일 무장면을 찾아 평소 군정을 찾기 힘든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이동군청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무장면사무소 2층에 마련된 이동군청실은 민원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꼭 필요한 민원고충 내용을 알리고, 유기상 군수와 각 부서 담당직원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민수당, 고창사랑상품권 등 최근 고창군에서 추진했던 현안 사업들이 민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개선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과속카메라 설치, 군도의 선형개량 등 민원의 안전을 위한 민원이 주로 제기됐다.

이에 유 군수는 "민원의 안전은 우리군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 민원들의 의견 하나 하나를 현안사업 등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산마을을 찾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청소하고 있는 무장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는 울력의 손길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구절초 꽃 축제장 직거래 장터 성황리 마쳐

정읍시가 구절초 꽃 축제장에 개장한 '정읍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운영을 종료했다.

시는 정읍 로컬푸드단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6일간 구절초 꽃 축제장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

앞서 시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19년 농산물 테마형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장터에서는 22개의 생산자 단체·영농법인이 참여해 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쌀, 귀리, 북분지주 등 지역 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150여 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약 1억 5천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또, 장터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재주문율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 품목 중 간장과 관련된 농특산물이 반응이 좋았고, TV에 방영되거나 인터넷상에서 홍보된 품목들이 인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건강 생활과 밀접한 농특산물을 대의적으로 홍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거래 장터 개장으로 구절초 꽃축제 방문 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스포츠 강소 도시로 거듭

정읍시,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학·실업 연맹과 전국 대회 개최 협약 체결

정읍시가 22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산하 한국대학·실업배드민턴연맹과 전국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김중수 부회장 등 배드민턴 대회 관련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3년간 전국 가을철 종별(대학, 일반)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정읍에서 개최하게 된다.

전국 가을철 종별(대학, 일반)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는 매년 전국에서 700여 명의 배드민턴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7박 8일로 예정된 대회 일정 동안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읍 고유의 대회 명칭을 붙여 스포츠 대회를 통한 시 홍보와 문화·역사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시는 국제·전국단위 배드민턴 경기가 가능하도록 체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스포츠 강소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 중인 종합 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국제대회 또한 가능하고, 우리 시가 전국 배드민턴 경기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한빛핵발전소 3, 4호기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영광 한빛핵발전소 범국민대회 참가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정읍시 한빛특위) 김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이도형, 기사재 위원 등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앞 '한빛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반대'와 3, 4호기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범국민대회는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한빛 핵발전소의 부실공사와 부실운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길이 157cm 대형 공극이 발견되는 등 전체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중 60.1%가 발생한 점과 지난 5월에 한빛원전 1호기에서 무차별 운전원의 실수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급등했지만 수동정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밝

히면서 한빛 핵발전소의 재가동 반대와 폐쇄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읍시 한빛특위는 전국 각지의 탈핵·환경·시민운동가들과 한빛핵발전소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정읍시 포함하는 한빛원전안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없는 한빛원전 재가동반대, 비상계획구역 정읍포함 60km까지 확대를 주장하며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무장애나눔길 녹색자금공모사업 선정

부안군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무장애나눔길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전북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돼 녹색자금(국비) 3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된 녹색자금과 군비 등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서림공원 내 무장애길 0.8km를 조성하고 힐링 공간, 진입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산림으로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산책하고 프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장애길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을 설치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서림공원 내 편백나무 숲, 철쭉길, 메타세콰이어 숲길 및 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 모든 군민이 불편함 없이 산림 내 힐링 및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로 '주목'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전북 건축문화대상 대상 수상 국토대전 국무총리상에 이은 경관·건축물 부문 쾌거

고창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멋진 건축물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자연형 성곽인 고창읍성을 비롯해, 정자 한가운데 온돌방이 있는 '취석정', 고창 알프스로 불리는 '파머스 빌리지'까지 건축학도의 견학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제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대상'에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가 일반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파머스빌리지는 상하농원이 지난해 7월 개관한 자연 속 다목적 호텔이다. 총 3층 높이에 4개의 객실을 보유했다.

외관은 나무 외벽과 크고 작은 자연석 벽, 곡은 지붕의 토포인이다. 건축테마는 야생화가 피어나고 자연 초목이 가득한 언덕 위에 곡식, 목초, 농기구 등을 저장하는 헛간이

자 화초를 재배하는 온실로, 농부가 편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했다.

앞서 '상하농원(고창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은 '가상의 마을을 상상하고, 꾸며낸 혁신적인 공간'으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이 주최하는 '2019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창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건축물들이 많다. 조선시대 자연형 성곽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창읍성'을 비롯해, 팔작지붕에 우물머리가 있고 정자 가운데를 온돌방으로 꾸민 독특한 양식의 '취석정' 등에 시선이 끌리고 있다.

또 일반식 목조주택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양식당' 등 과거와 현재, 미래의 건축 경향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시장길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현장평가

부안군은 22일 부안 시장길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시장길과 번영로를 중심으로 10만 422㎡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계획으로 이날 현장평가에서는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7명이 사업계획 발표를 듣고 사업대상구역을 현장점검 후 해당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돼 점포환경개선, 상징조형물 및 안내간판 설치, 상권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 마케팅 지원, 체험 프로그램,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안상설시장 위주로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시장 주변 상인들의 상대적 소외감 등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며 "특화상품 개발, 문화·관광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750ml 1ea/12% | GIFT SET 4세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375ml 5ea/13% | GIFT SET 6세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